

〈제 762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상생금융실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개최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새해 첫 행보로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에서 소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지역밀착경영 및 상생경영 실천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고병일 은행장은 간담회에서 “지역 기업과의 상생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것은 광주은행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필요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정책들을 발굴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끈끈한 연계를 통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지역밀착 상생경영의 토대를 더욱 단단히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기업 생산품 위니아 덩채 구매운동 참여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광주광역시청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지역 대표 가전기업인 대우위니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역제품 구매 운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금번 구매 운동은 광주은행 임직원들이 지역기업 생산품 구매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약 1억 8천만원 상당의 덩채 김치냉장고를 구매하여 지역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협력관계를 더욱 굳건히 다졌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대우위니아의 빠른 회생 절차가 이뤄져 지역기업들이 정상적인 기업 운영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에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 모색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광주순환도로투자&광주순환

◆취약계층 2천만원 후원



광주순환도로투자(주), 광주순환(주)(대표이사 이영훈)는 12월 20일 광주광역시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2천만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전달받은 온누리상품권 2천만원을 연말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400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영훈 대표이사는 “연말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마련했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

◆일상생활에서 명품을 즐기다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는 오는 2월 13일까지 '신년 기획전 : 용이 여의주를 얻듯이'를 연다.

황 작가는 신세계와의 협업을 위해 용을 주제로 3개 작품을 단독 제작했다.

황 작가는 "작품 중 '구름 속 쌍룡'은 청룡의 해를 맞아 두 아들을 떠올리며 제작한 작품으로 밝고 씩씩하게 구름 위를 날아오르는 쌍룡을 표현했다"고 소개했다.

광주테크노파크

◆ 신년 인사회..."지·산·학·연 상생과 협력" 다짐



광주테크노파크(원장 김영집)와 광주시는 지·산·학·연 거버넌스 협의체 주관으로 3일 '지역 상생과 협력을 다짐하는 갑진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역이 위기에 있을 때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서주신 산·학·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우리 지역 산업경제가 청양의 밝은 기운을 품고 시민과 기업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창의와 혁신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미래로 도약할 수 있게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

김영집 광주TP 원장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지역이 뚝뚝 뭉쳐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힘차게 전진하자"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우수활동기관 포상식 개최



광주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단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양정열)은 2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23년도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우수활동기관 포상식을 개최했다. 포상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상 3점,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3점이 수여되었다.

이날 포상식은 올 한해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 및 릴레이 캠페인, 합동 현장점검 활동을 통해 협력사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삼성전자(주) 광주사업장, 기아 AutoLand 광주를 비롯하여 한전 광주전남본부, 호반건설 등 6개 기관이 수상하였다.

양정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광주지역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우리 지역에 최적화된 산재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추진단 각 기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전남대학교 병원

◆"필수의료과 충원 등 전공의 채용 성과"



전남대병원(원장 안영근)은 혁신적인 평가시스템과 체계적인 수련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필수의료과 등 레지던트 채용을 늘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3일 밝혔다.

전남대병원은 올해 레지던트(전공의) 모집 결과, 99명 정원에 75명을 선발해 75.8%의 채용률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전국적으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필수의료과 전공의를 다수 충원해 고질적인 지역 의료인력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영근 병원장은 "전남대병원 교육수련실은 전공의 채용 시 변화된 시스템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전KPS

◆비전 달성·경영 혁신 다짐..."역량 결집"



발·송전설비 정비 전문기업 한전KPS(사장 김홍연)는 전력 그룹사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 혁신과 신성장 동력 창출 등에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한전KPS는 ▲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안전 최우선 경영 및 고품질 책임 정비 ▲ 기술개발과 인재 육성을 기반으로 신성장 동력 확대 ▲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확립 ▲ 노사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한 상생 경영 등 4대 핵심 목표를 설정했다.

한전KPS 김홍연 사장은 "국내외 노후 발전설비 성능개선, 원전 해체 등 원전 특화사업과 LNG 기술 자립화 등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전 임직원이 과감한 혁신과 소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비전 2030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전MCS

◆2024년 시무식 행사



한전MCS 정성진 사장은 2일 오전 나주 본사에서 열린 2024년도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올해 한전MCS의 경영목표를 밝혔다.

정성진 사장은 "2023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려운 상황에도 직원들의 열정과 노고로 이룬 성과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새해에도 주력사업의 안정화와

신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해 회사 경영을 이끌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해양에너지

◆해양에너지, 취약계층 요금감면 홍보 강화



해양에너지(대표이사 정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침' 개정에 따라 적극적인 요금 감면 혜택 홍보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광주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에 더욱 힘을 보태기 위해 요금감면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경감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정희 해양에너지 대표이사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대상자 경감제도를 홍보하며,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고민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해양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알 린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수 용 대리

○ e-mail : gjef3425@naver.com

II. 광주경총 소식

〈2024년 신년인사회 및 강기정 시장 특별강연〉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 ㈜호원·해피니스CC 회장)가 지난 1월 5일 금요일 오전 7시 홀리데이인 호텔 컨벤션홀에서 갑진년(甲辰年) 신년인사회와 강기정 시장 특별강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년인사회에는 기초자치단체장, 국회의원, 협회·단체·연구원장과 광주경총 회원기업 등 350명 인사가 참석하여 갑진년 힘찬 출발을 다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양진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광주경총 43년 역사 이래 가장 많은 617개 사의 회원과 100억 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지역 청년과 중장년 4,019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큰 실적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신 강기정 시장님과 경총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회원기업이 힘든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경영애로 해결에 집중하고 회원기업 의견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경총 모든 임직원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참석자의 신년 덕담을 유도했다.

II. 광주경충 소식



정무창 시의회 의장은 ‘작년 한 해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면서 ‘금년도 경충과 협력하여 광주 미래 먹거리 확보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청년들이 광주에서 나고 자라고 교육받고 일자리를 찾고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광주경충과 만들어 나가기겠다’면서 경충 회원사에게 고졸인재 채용을 주문했다.

II. 광주경충 소식



김봉길 전임 회장은 ‘오늘 신년인사회에 많은 분이 참석했다’면서 ‘오늘처럼 회원들이 굳건하게 뭉치고 협력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나가자’고 말했다.



윤종해 한국노총 의장은 ‘기업하기 좋은 광주, 노동이 존중받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광주시, 경충, 노총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I. 광주경총 소식



고병일 광주은행장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라 생각한다'면서 참석하신 분들의 건강과 기업 번창을 염원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올 한해 광주경총과 함께 기업 애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광산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참석한 분들의 많은 참여와 지원을 요청했다.

II. 광주경충 소식

조종래 중소기업청장은 신년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 양진석 회장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는 '광주전남 중소기업이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행사에 참석한 김경만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송갑석 국회의원은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어깨 펴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지역소멸을 막고 거점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으며, '양향자 의원은 기업인이야말로 선구자이며, 선각자다'면서 갑진년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했다.



강기정 시장은 '경충 금요 조찬포럼은 지난 34년간 국내외 주요 이슈가 논의되고 미래 신기술을 공유하는 등 광주 기업인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경충 금요조찬 포럼이 광주에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인사말로 신년 특별강연을 시작했다.

강시장은 광주의 주요 이슈인 △군·민간공항 이전, △도시철도 2호선, △복합쇼핑몰 개발에 대해 진행 경과와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광주시는 3대 원칙(공정성, 투명성, 신속성) 갖고 추진하고 있으니 믿고 맡겨 달라고 이야기했다.

II. 광주경총 소식



아울러 광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9대 대표산업(반도체, 데이터, 모빌리티, 인공지능, 문화콘텐츠, 에너지, 메디헬스케어, 광융합, 스마트부리)을 소개하고, 특히 인공지능(AI)과 미래차 산업은 광주의 미래먹거리인 만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산업의 활성화와 고도화를 위해서는 인재가 중요하다'면서 그 해법으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 이르는 교육과정에 시청, 교육청, 기업이 원팀이 돼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1. 경제 동향

◆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연간 수출입 동향」 발표 (1.1)

- 2023년 수출은 6,326.9억달러(전년대비 7.4% 감소), 수입은 7,311.8억 달러(전년대비 12.1% 감소)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99.7억 달러 적자를 기록.

※ 최근 5년('19~'23년) 수출입 증감률 추이 :

[수출] $\Delta 10.4\%$ ('19) $\rightarrow \Delta 5.5\%$ ('20) $\rightarrow 25.7\%$ ('21) $\rightarrow 6.1\%$ ('22) $\rightarrow \Delta 7.4\%$ ('23)

[수입] $\Delta 6.0\%$ ('19) $\rightarrow \Delta 7.1\%$ ('20) $\rightarrow 31.5\%$ ('21) $\rightarrow 18.9\%$ ('22) $\rightarrow \Delta 12.1\%$ ('23)

- (품목별) 15대 주력품목(전체수출의 약 75% 차지) 중 자동차, 선박, 일반기계를 제외한 12개 품목의 수출이 모두 감소

※ 2023년 품목별 수출증감률(%)

: (자동차) 31.1, (선박) 20.9, (일반기계) 4.6, (가전) $\Delta 1.0$, (차부품) $\Delta 1.5$, (이차전지) $\Delta 1.5$, (철강) $\Delta 8.4$, (무선통신) $\Delta 10.2$, (섬유) $\Delta 11.2$, (디스플레이) $\Delta 12.1$, (석유화학) $\Delta 15.9$, (석유제품) $\Delta 17.0$, (바이오헬스) $\Delta 18.0$, (반도체) $\Delta 23.7$, (컴퓨터) $\Delta 53.3$

※ 최근 5년('19~'23년) 반도체 수출 증감률 추이(% , 전년대비)

: $\Delta 25.9\%$ ('19) $\rightarrow 5.6\%$ ('20) $\rightarrow 29.0\%$ ('21) $\rightarrow 1.0\%$ ('22) $\rightarrow \Delta 23.7\%$ ('23)

- (지역별) 對CIS(13.2%), 對중동(7.3%), 對미국(5.4%), 對EU(0.3%) 등의 수출은 전년대비 증가했고, 對인도(4.8%), 對일본(5.1%), 對중남미(7.4%), 對아세안(12.5%), 對중국(19.9%) 등의 수출은 전년대비 감소

※ 2023년 對중국 수출액은 1,248.4억 달러로 2022년(1,557.9억 달러)보다 줄어든 반면, 2023년 對미국 수출액은 1,157.2억 달러로 2022년(1,097.7억 달러)보다 늘어 대조를 보였다.

◆ 통계청, 「2023년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23.12.29)

- 2023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에 비해 3.6% 상승하여 2022년(5.1%) 대비 상승률이 둔화

※ 최근 5년('19~'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 0.4%('19) \rightarrow 0.5%('20) \rightarrow 2.5%('21) \rightarrow 5.1%('22) \rightarrow 3.6%('23)

Ⅲ. 노동경제동향

※ 소비자물가는 2023년 12월 전년동월대비 3.2% 상승하여 2023년 8월(3.4%) 이후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이 지속

- (지출목적별) 교통(Δ 3.4%)을 제외하고 의류 및 신발(6.7%), 음식 및 숙박(6.0%), 기타 상품 및 서비스(5.8%) 등 11개 지출부문 모두 전년대비 상승

- (품목성질별) 상품은 전기·가스·수도(20.0%) 등이 올라 전년대비 4.0% 상승했고, 서비스는 개인서비스(4.8%)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3.3% 상승

○ 2023년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대비 4.0% 상승했으며, 소비자들의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생활물가는 전년대비 3.9% 상승

◆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발표 (1.4)

○ 2023년 외국인직접투자(FDI, 해외→국내)는 총 187.9억불(도착 기준)로 전년대비 3.4% 증가

※ 2023년 외국인직접투자(187.9억불)는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62년 이후 최대치

○ (업종별) 제조업은 전기·전자, 운송용기계 등의 증가 영향으로 55.8억달러(전년대비 10.2% 감소)를 기록했으며, 서비스업은 금융·보험,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등의 증가 영향으로 124.9억 달러(전년대비 7.7% 증가)를 기록

○ (국가별) 중국 3.0억달러(전년대비 42.0% 증가), 미국 22.8억달러(Δ 10.1%), 독일 2.4억달러(6.1%), 일본 9.5억달러(Δ 16.6%) 등 기록

◆ 고용노동부, 「2023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3.12.28)

〈고용 부문('23.11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 (종사자 수) 사업체 종사자는 1,997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만 3천명(1.4%) 늘어나며 2021년 3월부터 33개월 연속 증가

○ (입·이직) 입직자는 92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3천명(1.4%) 증가했고, 이직자는 92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9천명(4.4%) 증가

Ⅲ. 노동경제동향

〈 근로실태 부문('23.10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

- (명목 임금)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 임금총액은 379만 2천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6만 1천원(4.4%) 증가
- (총 근로시간)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46.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1시간 (△2.7%) 감소
 -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과 동일(19일)하며, 대부분 산업에서 감소

[1~10월 누계 근로실태]

- (명목 임금) 1~10월 누계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 임금총액은 394만 4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만 3천원(2.7%) 증가
 - ※ 사업장 규모별 명목 임금상승률(1~10월 누계, %) : [300인 미만] 2.3, [300인 이상] 2.7
- (총 근로시간) 1~10월 누계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5.6시간으로 전년 동기대비 1.3시간(△0.8%) 감소
 - ※ 1~10월 누계 근로시간 감소(1.3시간)는 동기간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동기대비 1일 증가했음에도,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영향

2. 노사 동향

◆ 정부는 노동개혁 지속 추진 표명

-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노사법치 확립 기반 하에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언
 - [노사법치 확립] ①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 보장, ② 불법행위에 대해 노사불문 엄정대응
 - [임금체계 및 근무형태 개편] 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② 노사합의를 통해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 선택
- 또한 대통령은 1. 2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으로 공정과 법치를 확립해경제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
-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노사법치 확립 등 주요 과제와 함께 사회적 대화 추진 방향 언급
 - [노사법치 확립] : ① 사회초년생, 경력단절여성, 퇴직한 중장년 등 노동시장 약자 권리 보호, ② 상습 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③ 직장내 괴롭힘, 채용강요 등 비리근절
 - [사회적 대화 추진] : ① 근로시간·임금체계 등 논의, ② 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등 ‘계속 고용을 위한 로드맵’ 마련, ③ 지역·업종·직종, 미조직 근로자 등으로 사회적 대화 층위 확대,
 - [중대재해 예방체계 안착] : ① 위험성 평가 현장지원 및 점검 강화, ②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
- 정부는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제도 개선 입법이 여소야대 국회 상황으로 어려운 만큼총선 이전까지 고용부 산하「상생임금위원회」, 경사노위 산하「노사관계

Ⅲ. 노동경제동향

제도·관행 개선자문단」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에서의 전문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 적 대화 추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참고] 노동개혁 추진 관련 회의체 주요 논의 내용

구분	주요 논의 내용
상생임금위원회 (2023. 2. 2 발족)	①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의 공정성 확보 ②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 (2023. 2. 8 발족)	① 노조의 민주적 운영(재정 투명성, 선거 공정성) 강화 ② 파업시 대체근로 및 직장점거 관련 제도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 (2023. 2. 9 발족)	① 파견제도 선진화(파견 대상 및 기간) ②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 경제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 경총 등 경제6단체는 1.2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기간의 2년 연장 촉구

※ 공동성명 참여 단체 :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 1. 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예정

- 경제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돼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이 우려됨을 강조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 2년 연장시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

○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으나, 여야 입장차가 지속되고 있어 본회의 상정 불투명

※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 : 1. 9(예정)

- 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의 조건으로 ① 법률 확대 적용 준비 미흡에 대한 정부의 사과, ② 유예기간 동안 안전확보 계획 제시, ③ 2년 유예 이후 법률을 시행한다는 정부·경제단체 등의 약속을 제시하며 기존 입장 고수